

▶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26일 전주국립무형유산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무형문화 존재·가치 세대에서 세대로

의식에서 예능·놀이·음식·공예까지 조 상으로부터 전수한 무형문화는 여태껏 사회공동체를 지탱해 준 우리의 소중한 정신 자산이다. 무형문화는 원형의 틀을 유지하며 때론 세상이 일하는 모습으로 적절하게 변용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항수)은 공동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온 무형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연다.

오는 26일부터 전주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소 접하기 힘든 우리의 기·예능 무형문화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무형문화재대전의 주제는 선조가 물려준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대대손손'이라고 명명했다. 행사는 기예·예능·체험·학술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기예 분야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분야별 종목 소개와 전송 과정을 영상, 작품, 그래픽 등을 통해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주제관', 인간문화재 100여 명의 작품 250여 점을 통해 전통공예의 백미를 맛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구성된 '전통공예대전 역대 수상작관', 국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선보이는 '인증제품관', 장인과 현대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전통공



기능 등 4개 분야 나뉘어 진행
즐기는 축제 자리매김 기대

예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협업관'으로 구성되어 선보인다.

예능 분야 행사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연희와 풍물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전통공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느끼게 될 '이수자 합동공연-시간의 단면', 강강술래·아리랑·택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인류무형유산 합동공연-뿌리 깊은 삶, 협화, 줄타기·발탈 등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보

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원공연', 판소리·호남살풀이춤 등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만날 수 있는 '전주시 무형문화재 예능 공연-일생일대',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한껏 선보이며 이번 행사 대단원의 막을 내릴 '농악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방송과 무대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남궁연 공연감독이 기획한 '이수자 합동공연-시간의 단면'은 젊은 이수자의 노래와 춤 그리고 연주에 이어 국립발레단과 인디밴드 크라이닉의 협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전통 연희와 풍물을 재해석한 이번 행사만의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 분야는 장인들이 평소 사용하는 도구로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펼쳐 보이는 '합동 공개 행사관', 전통 팔찌와 손거울 만들기 등 전통공예를 비롯해 처용무·강강술래 등의 전통예능을 배워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체험관'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학술 분야 행사에선 전 세계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무형문화재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존방안을 찾아보는 '제1회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무형문화유산과 도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유산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통해 우리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 즐기고 누리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가을, 빛으로 물들다'

송계일 '산의 노을' →

전북도립미술관
26일까지 소장품전

전북도립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소장품전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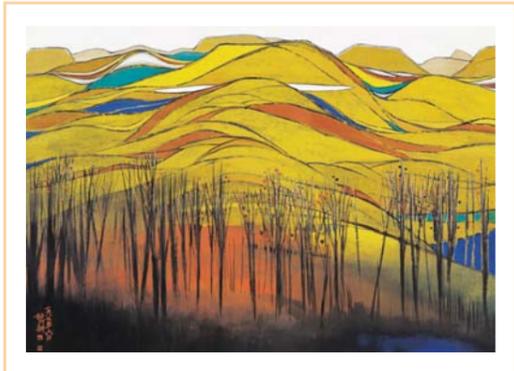
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오는 26일까지 도청 기획전실에서 '빛으로 물든 가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소장 작품 중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설렘이 담긴 22점의 작품들로 채워진다.

전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원로작가 송계일의 작품 '산의 노을'은 가을 산의 이미지를 작가의 주관적 색채 해석과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고 허반영 작가의 '모악산 가을'은 전형적인 구도와 배치를 이룬 화면으로 시선을 잡는다. 작품엔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색채와 향토적이면서 안온한 정서가 배어났다. 더불어 캔버스를 통해 마이산의 생동감과 편안한 느낌을 전달하는 '진안 마이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사시사철 변하기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 소 훈 작가는 '늦가을, 떠돌'은 선보인다. 갈대 숲 사이로 흘러 서 있는 냇가의 뒷모습을 그려낸 작품은 고독과 우수를 자



↓ 소 훈 '늦가을, 떠돌'



아낸다.

또한 조각가 배형식의 '새치미'는 작품의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외적인 진실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작품은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완결미가 돋보인다. 과장이나 과묵이 없는 차분함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관은 미술사 및 조형적으로 가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미 있고 수준 높은 미술문화의 자산을 축적함은 물론 보존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호남 선교사들의 헌신·사랑

전주대 호남기독교박물관 특별전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18일부터 24일까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호남기독교박물관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전 '오직 성경! Sola Scriptura!'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갖는다.

이번 특별전에선 최미정 작가의 성화 작품과 초기의 한글 성경 등이 총 2부로



나뉘어 전시된다. 1부는 종교개혁과 한글 성경 번역으로, 2부는 서서평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헌신과 사랑 등으로 구성됐다.

전주대학교 측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여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못 박은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며 "이번 전시가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호남지역 선교사들의 섬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총회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16일~17일 양일간 전주 JS호텔 2층 연회장에서 지역연계포럼 및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총회를 연다.

이번 행사 개최는 재단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부의장 기관으로 활약함에 따른 것이다. 포럼 및 총회엔 전국의 광역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16일 1일차에는 오후 1시부터 기관장 간담회 및 실무진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4시부터 6시에는 지역연계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미래적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전민력 양성을 위한 문화전문대학 설립'을 주제로 각 권역의 문화재단 대표 및 관계자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갖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2일차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및 실행



하는 것'에 있는 만큼 안전 토의와 더불어 각 지역의 문화예술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

재단은 "양일에 걸친 포럼과 총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17일 오후에는 참여자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 한옥마을 투어를 통해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정취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서해의 푸른바다와 함께 꿈과 희망을 군산시수협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합장 김광철
상임이사 전진세

수산인에게 풍요로움!

고객에게 신뢰감!

임직원에게 자긍심!

수산업 중심체로서

수산인과 고객을 위해

힘차게 뿜 것을 약속합니다.

강한수협, 든든수협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www.gunsan-suhyup.co.kr